

서유럽을 강타한 돼지 괴질

Sake Moeskev

자돈에 매우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괴질병이 북서부 유럽을 강타하였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최근 조사보고에 의하면 농장간에 물품이나 가축의 이동을 통해서 이 질병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병은 대기를 통하여 전파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이 질병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대기를 통해 널리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조사하였다. 오제스키병의 발병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폐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뇌심근염 바이러스(EMC-Virus)가 괴질의 원인으로 추정되어졌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분리되어졌다고는 하나 연구원들에 의해 확인되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양돈산업지역인 중서부의 농장에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질병의 발생이 보고되어졌었다.

1. 증 상

Misset Pigs 의 1990년도 9, 10월호의 기사에 Dr. Wayne R. Freeze는 의문의 생식기 증후군(Mystery Reproductive Syndrome)을 기술한 적이 있다. 프리즈는 업존에 속하며 와싱턴에 소재하는 옥스포드 수의연구소(Oxford Veterinary Laboratory)에 근무하고 있다.

프리즈에 의해 기술된 증상은 괴질이 강타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양돈장에서 관찰된 증상과 동일하였다.

증상으로는 임신후기 모돈이 질병에 걸리고, 체온이 올라가며, 사료섭취량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유산이 늘어난다. 또한 태어난 자돈은 허약하고 갑자기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이차적인 감염에 매우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돈내에서의 폐사율은 이유시까지 60-80%로 매우 높다.

프리즈에 의하면 이 질병은 10-12주 동안 지

속되나 특별한 경우 4-6달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2. 원 인

프리쯔는 MRS의 가능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들고 있다. 렙토스피라균(Leptospirosis Brotislava), 곰팡이 독소(Myco-toxin), 파보바이러스(Parvovirus), 유행성 클라미디아증을 일으키는 클라미디아(Chlamydia psittacosis),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Swine influenza Virus), 돼지 엔테로 바이러스(HEV)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뇌심근염 바이러스(EMC-Virus)를 들었다.

업존의 연구진들에 의해 뇌심근염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동일한 질병증상을 일으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옥스포드 연구소의 사람들은 뇌심근염 바이러스(EMC-Virus)를 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옥스포드 수의연구소는 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으며 뇌심근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미국의 농무성에 허가를 받고 있다.

3. 뇌심근염 바이러스의 다른 형

브뤼셀에 있는 업존의 Mr. J. Dreesen에 의하면 EMC를 검사하는데 있어 실패할 수 있는 음성의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비록 가축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라도 EMC 바이러스를 항상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로써 이 검사방법이 현재 유럽에서의 한가지 형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유용하다 할지라도 다른 형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바이러스의 다른형에 감염되면 검출 할 수

있다. 이것은 독일의 연구가들이 MRS의 원인으로 EMC를 문제시 여기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옥스포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검사방법은 단지 부정확하고 오해하기 쉬운 음성이 나타나는 기회를 감소시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시장에 미국의 진단키트를 도입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진단키트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지않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말해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백신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 결과로 이 질병에 대한 치료약제는 당분간 유럽에서 유용하게 사용치 못할 것 같다.

● 증상과 예방 척도

- * 첫번째 증상으로 임신돈은 체중이 올라간다. 사료섭취가 줄고 호흡하기가 어려워진다. (복식호흡)
- * 가끔 모돈의 귀부위가 파랗게 변하며 복부와 외음부에 푸른 반점이 생긴다. 약간의 모돈은 죽기도 한다.
- * 임신후기 뿐만아니라 초기에도 유산이 일어난다.
- * 자돈의 폐사는 매우 높다.
- * 살아서 태어난 자돈은 허약하고 2차 감염(관절부위의 염증, 설사 등)에 감수성이 매우 높다
- * 귀가 파랗게 변하는 것과 같은 심맥관계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능한 다른 농장과의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위생관리로 주위를 요하는 것이이 질병의 전파로부터 자신의 농장을 지킬수 있는 단지 하나의 방법이다.

<PIGS4월호 번역>